

지역 소식통

정읍시, 안전·위생적 '안심식당' 확대 운영

정읍시가 외식업계의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외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2023 안심식당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식당 사업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식당 출입구에 안심식당 현판이 부착되고 안전한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 물품이 지원된다.

또한, 민간 포털 사이트와 지도 앱(네이버·T맵) 등에 해당 업소의 정보가 제공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0개의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신규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관련해 시는 4월 28일까지 지역 내 일반·휴게음식점 중 식사류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식당' 희망 업소를 모집·접수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례를 추진중인 고창군이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12월까지 시행한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가 방문 인원 관광 및 음식점 이용 등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기준 인원을 낮춰 여행사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은 늘려주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고창군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로 당일 관광의 경우, 내국인 20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을 모아 유료 관광지 2개소와 음식점 1개소를 이용하면 1인당 5000원이 지원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파 에너지 특별지원금 지원

정읍시, 전 세대 111억3000여만원 투입... 세대당 20만원씩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정읍시가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 111억3천여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7일 기준 54,485세대 중 취약 노인인구와 한부모가정 등 3,839세대는 도비 보조금으로 지급(7억 7천여 만 원)한다.

나머지 일반세대는 시비(재난 예비비)로 세대당 20만원씩 103억6,000여 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화수 시장과 고경운 정읍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정단은 8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사항과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례적인 한파의 지속과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각 가정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정읍시의회의와 협의를 거쳐 전 가구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생계비를 지역화폐로 부담할 수 있는 동시에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정읍시가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 111억3천여만원을 지급한다.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의 수령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유흥업종과 사업업종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정읍사랑 상품권 가맹점 4,200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20일부터 4주간 세대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간 많은 시민이 몰릴 것에 대비해 생년월일 끝자리 5부제

를 적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거동 불편 시민과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화수 시장은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 지급이 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진서면은 지난 8일 150여명의 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권익현 군수와 함께하는 군민소통대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경로당·민생현장 4개소 방문

부안 진서면, '2023년 군민소통대회' 성황리 개최

부안군 진서면은 지난 8일 150여명의 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권익현 군수와 함께하는 군민소통대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이날 행사는 문화공연, 장학금 기탁식, 면정 주요업무보고, 군정비전공유, 군민소통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화공연에는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인 난타 공연과 퓨전장구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바로 이어 새마을 부녀회(회장 장필순)에서 부안군 농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조성을 위해 100만원을 기탁하는 행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3년 진서면 주요 업무에 대한 조진곤 진서면장의 면정보고가 진행되어 면민의 자긍심과 공감을 얻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다음으로 진행된 권익현 군수의 "장신비상 2023년 군민소통대회"로 2022년 성과 및 2023년 업무계획을 듣는 비전공유 시간을 가져 군정에 관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후 경로당과 민생현장 4개소를 방문하여 새해 인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한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행정을 펼쳤다.

조진곤 진서면장은 "계묘년에는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며 친절과 미소로 관광객을 맞이하여 다시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진서면이 되도록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운영

8일부터 1년간 시행

고창군이 8일부터 1년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항목을 18개로 늘

려 보장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에 비해 2개 항목이 늘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상해사망 등 18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감염병사망 항목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1급→2급) 보험사의 보장항목 종료로 제외됐다.

2022년 보험금 지급 건은 총 25건으로 농기계 사고사망 1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는 2건, 감염병사망 22건으로 총 9100만원을 보상받았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창 주민은 관련 증빙 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경명서등)를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1577-5999)에 문의 및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에 의거 3년간 미행사 시 소멸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군민들을 섬기는 안전 군정 실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벼 육묘용 상토 지원 고품질 쌀 생산 앞장

정읍시가 농촌역력의 고령화에 따른 벼 재배 농가의 농업경쟁력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육묘 생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벼 육묘 생산 지원사업'은 육묘에 적합한 상토와 상자모를 공급해 토양 오염과 병충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육묘 생산을 통한 품질 좋은 쌀 생산에 농가 소득향상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고, 1만2420ha 농지에 3만 7,200포(경량상토 기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벼 재배 농가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30포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



센터를 방문해 자격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검토해 농가별로 공급물량을 3월 까지 확정하고,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6월 중순까지 농가에 공급해 못자리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 절감으로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보전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풍년 농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with hands pointing towards her. The text promotes reporting child abuse to the 112 hotline. Key points include: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You who reports are a hero),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Report if you know or suspect child abuse, otherwise a fine of up to 500,000 won is imposed), and a list of signs of child abuse such as '아동학대 행태적징후' (Behavioral signs of child abuse) including withdrawal, fear, and aggression.